

# 한-아랍에미리트(UAE)간 투자협력 및 교류 확대를 위한 '제8차 한-아랍에미리트 경제공동위 개최

- 300억불 투자 이행 등 아랍에미리트와 투자 협력 확대 추진
- 우리 기업의 아랍에미리트 수출·수주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총력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양국은 「제8차 한-아랍에미리트 경제공동위」를 7월 6일(목),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경제공동위는 추경호 부총리와 아랍에미리트(UAE) 알 마리 경제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경제분야 최고위급 회의체로, 5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 양국 모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추경호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양국이 미래를 함께할 동반자로서 함께 갈 길을 4가지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양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 분야 협력을 가속화하고, 둘째, 양국의 전통적 협력 분야인 에너지·기반시설(인프라) 협력에 친환경과 디지털을 더해나가며, 셋째, 양국의 물질적·경제적 교류를 문화적·인적 교류로 확장하고, 넷째, 양국의 협력의 무대를 세계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초('23.1.) 정상순방의 성과를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세부 이행 및 성과 확산 방안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였다. 특히, 추경호 부총리와 대표단은 우리 경제의 영업사원으로, 아랍에미리트와 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먼저, 지난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아랍에미리트(UAE)의 300억불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한 세부 방안 논의와 함께, 두바이 투자청(ICD)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KIC)간 친환경 분야 투자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두바이 국부펀드와의 투자협력 확대를 추진하였다.

또한, 우리 기업의 아랍에미리트(UAE)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과 아랍에미리트 수출신용보험공사(ECI)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공동위 계기,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아랍에미리트 진출환경 세미나와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을 대변하여 우리 기업이 현재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시공 중인 사업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원만한 협의를 촉구하고, 아랍에미리트에서 추진 중인 천연가스 설비(플랜트) 사업 등에서 우리 기업의 수주를 지원하였다. 또한 수소·의료·문화 등 유망분야 진출 기반 확대에 관한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졌다.

|       |                |     |     |                        |
|-------|----------------|-----|-----|------------------------|
| 담당 부서 | 대외경제국<br>국제경제과 | 책임자 | 과 장 | 김봉준 (044-215-7630)     |
|       |                | 담당자 | 사무관 | 박효은 (hyoeun@korea.kr)  |
|       |                |     | 사무관 | 박정환 (goukaku@korea.kr) |

## 1. 제8차 한-아랍에미리트(UAE) 경제공동위 개요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이하 UAE) 양국은 「제8차 한-UAE 경제공동위」\*를 7월 6일(목),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 한-UAE 경제공동위는 '06년에 양국 정상이 합의하여 설치한 기획재정부와 UAE 경제부간 장관급 회의체로서, 범부처 차원의 협력 사안을 총괄·조정하는 경제협력 채널

○ 이번 회의는 5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었으며, 올해 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협력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한 만큼, 양국 모두 높은 관심을 보였다.

\* (1차) '07.6월 (2차) '10.5월 (3차) '12.5월, (4차) '14.4월 (5차) '16.5월 (6차) '18.3월 (7차: 영상) '20.9월

- 한국측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국토부, 외교부, 중기부, 복지부, 문체부, 식약처, 특허청, 통계청 등 경제부처 국장급이 참석하였다.

- UAE측에서는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 경제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통계청, 우주청, 무바달라, 원자력공사(ENEC), 수출신용보험공사(ECI), 칼리파경제지구(KEZAD), 연방상공회의소(FCCI) 등 20여명의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 추경호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양국이 미래를 함께할 동반자로서 함께 갈 길을 4가지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 첫째, 양국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 분야 협력을 가속화하고,  
둘째, 양국의 전통적 협력 분야인 에너지·인프라 협력에 친환경과 디지털을 더해나가며,  
셋째, 양국의 물질적·경제적 교류를 문화적·인적 교류로 확장하고,  
넷째, 양국의 협력의 무대를 세계로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알마리 장관은 올해 초 정상회담 이후 이어지는 양국의 다양한 교류·협력 모멘텀을 앞으로도 공고히 발전시켜나가자고 화답했다.

- 특히, 오늘 공동위에서 논의한 투자·무역, 에너지, 원전, 신산업, 스마트 인프라, 우주, 기후변화, 농업·수자원, 보건·의료, 문화 등 양국 공동 관심분야에 대한 협력 노력에 박차를 가해 나가자고 하였다.

- 또한, 유가 불안정 등 글로벌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UAE는 개방·

융합 정책을 추진하고,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및 비석유부문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한국과 함께하길 희망했다.

## 2. 제8차 한-UAE 경제공동위 성과

□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초('23.1월) 정상순방의 성과를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세부 이행 및 성과 확산 방안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였다.

- 특히, 추경호 부총리와 대표단은 우리 경제의 영업사원으로, UAE와 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 ① 투자 협력 활성화

- 먼저, 지난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UAE의 300억불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하였다.

- 중소 벤처기업, 바이오 분야에서 대면 교류 확대\*, 공동펀드 및 IR 등을 통해 투자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양국 경제협력 사업과 300억불 투자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국 최대 규모 스타트업 행사인 ComeUp Global StarUp Festival('23.11월, 서울), UAE 글로벌 투자 포럼 Investopia Conference('24.2월, UAE) 등 협력

- 또한, 300억불 투자가 아부다비 국부펀드인 무바달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회의를 통해 두바이 국부펀드와의 투자협력 확대를 추진하였다.

- 두바이 투자청(ICD)과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KIC)간 친환경 분야 투자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수소, 재생에너지, 스마트 시티, 친환경 인프라 건설 등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제3국 공동진출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 ②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지원

- 우리 기업의 UAE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양국 수출금융기관간 협력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양국간 비석유분야 무역·투자 확대를 위해 수은과 UAE 수출신용보험공사(ECI)간 협력 MOU를 체결하기로 하였다.

- 또한, 이번 공동위 계기, UAE의 KEZAD와 협업하여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UAE 진출환경 세미나와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하여, UAE 진출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 UAE 진출환경 세미나(7.4일, KOTRA), 한-UAE 비즈니스 상담회(7.6일, 중소기업진흥공단)

-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을 대변하여 우리 기업이 현재 UAE에서 시공중인 사업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원만한 협의를 촉구하고, UAE에서 추진 중인 천연가스 플랜트 사업 등에서 우리 기업의 수주를 지원하였다.

\*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공기 지연 및 비용 증가

- 양국의 무역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UAE는 우리 기업의 UAE 진출을 위해 필요한 통계(예: UAE 수입 세부 통계) 등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바이오 경제 동반자협정 협상의 조속한 개시와 한-GCC FTA 협상의 신속한 타결에 합의하였다.

### ③ 수소·의료·문화 등 유망분야 진출 확대 기반 마련

- 수소 생산·운송·교통 분야 국내 기술의 해외 실증을 위해 UAE 현지에서의 관련 사업부지 제공 및 인허가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 한국 의료인의 UAE 진출 자격을 완화하고, 의약품·의료기기의 수출 확대를 위해 UAE 의료 관련 규정에서 한국을 승격하는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였다.

\* 의료인 통합면허관리기준(PQR) 상 한국 등급 승격(Tier2→1) → 컨설턴트 자격취득 요건 완화

\*\* 한국(식약처)을 UAE 보건예방부의 참조국으로 인정 → 품목허가 절차 간소화

- 또한, 우리 자율운항선박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위해 국제협약 제개정 논의해서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으며, 올해 UAE 현지에서 개최 예정인 'K-콘텐츠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3. 향후 계획

- 오늘 논의된 의제들을 각 분야 협력채널을 통해 지속 심화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 차관급 회의를 '24년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한-UAE 경제공동위는 장관급 공동위와 차관급 점검회의를 번갈아 가며 개최

## 【 ① 인사말씀 】

- 존경하는 알 마리 UAE 경제부 장관님,  
그리고 UAE 대표단 여러분,  
환영합니다!
- 5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한-UAE 경제공동위를 위해  
한국에 오신 것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 【 ② 한-UAE 협력관계 】

- 한국과 UAE는 상호 보완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 UAE의 안정적 원유공급은  
한국 경제 발전의 자양분이 되었고,  
한국은 UAE 인프라 건설의 신뢰감있는 파트너였습니다.
- '09년 바라카 원전의 협력을 계기로 한국과 UAE는  
안보·의료·외교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며  
진정한 형제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 \* '형제'를 뜻하는 '아크'부대 파견('11년), 세이크칼라파 병원 위탁 운영('14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18년) 등
- 올해 초 양국 정상은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특히, UAE의 300억불 투자 결정으로  
한국과 UAE는 국제적으로도 주목받는  
특별한 협력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 ③ 한-UAE 경제협력 확대방향 】

- '갈 길을 정하기 전에 동반자를 선택하라'는 아랍 속담처럼 양국은 중요한 순간마다 서로를 미래를 함께할 동반자로 선택하였습니다.
  - 이런 의미에서 저는 '양국이 함께 갈 길'을 4가지 방향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첫째, 양국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 분야 협력을 가속화해야겠습니다.
  - UAE가 일찍이 포스트오일 시대를 대비하면서 양국은 신산업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 모두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둔 우주 분야도 그 시작에 양국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 \* UAE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화성탐사선(아말) 발사에 성공('20.9월)
  - \*\* 한국의 위성개발 기업(세트렉아이)이 UAE 최초 인공위성(두바이셋-1호)을 개발
  
- UAE의 한국에 대한 300억불 투자의 우선투자 협력 분야로 에너지,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 등을 선정한 만큼,
  - 한국의 첨단산업 역량과 UAE 투자가 시너지를 발휘하여, 또 한번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 또한, 오늘 공동위 개최를 계기로, 한국 우수기업의 UAE 진출을 지원하고, 두바이 투자청 등 양국의 공공 금융·투자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는 등 양국 상호간 투자협력도 발전시켜 나가야겠습니다.
  - \* 두바이 투자청-한국수출입은행, 두바이 투자청-한국투자공사(KIC)간 협력 활성화, UAE 수출신용보험공사(EIC)-한국수출입은행간 협력 MOU 체결 등
- 둘째, 양국의 전통적 협력 분야인 에너지·인프라 협력에 친환경과 디지털을 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바라카 원전 건설 협력을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새로운 분야로 확대하고, 청정 수소 공급망 구축 등에 서로의 강점을 살려 Win-Win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 양국의 인프라 협력 또한 스마트 시티 건설, 수소차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 스마트팜, 해수담수화 등 스마트·친환경 인프라 전반으로 확대해 나가야겠습니다.
  - 또한, UAE 인프라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해결하여 양국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해야겠습니다.
- 셋째, 양국의 물질적·경제적 교류를 문화적·인적 교류로 확장해야 합니다.
  - 2020 두바이엑스포에서 한국관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 저는 그 성공 비결이 최첨단 모빌리티 기술에 '한류'를 입혀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처럼 양국의 협력을 좀 더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관광, 콘텐츠 등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해나가야 합니다.
    -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 등 산학연을 연결하는 전문가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 협력의 인적 기반도 확대해야겠습니다.
  - 아울러, 항공 분야 협력을 통해 양국의 교류를 뒷받침하고, 의료 분야에서도 한국의 우수한 의료인과 의료제품 진출 등이 활발해져 UAE의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 넷째, 양국의 협력의 무대를 세계로 확대해야 합니다.
  - 먼저, 양국의 시너지가 증명된 원전, 인프라 건설 분야 등에서

제3국 공동진출을 활성화하고,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도 글로벌 기업 육성을 목표로 해야겠습니다.

-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며 글로벌 선도국가로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 UAE는 올해 말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COP28)를 개최하는 등 기후변화 이슈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한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23.8월, 인천) 등을 통해 당사국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는 한편, 그린 ODA 확대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4 마무리 말씀 】

- 존경하는 알 마리 경제부 장관님,  
그리고 UAE 대표단 여러분!
- 공급망 재편, 기술경쟁,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국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 양국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적 요인들을 함께 헤쳐나가고, 함께 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데, 오늘 회의가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오늘 회의를 통해 양국 협력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협력 의제들이 논의되길 기대합니다.
- 감사합니다!